

짜왓디 삐마이 크랍!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여름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름은 뜨겁지만 뜨거운 여름이 지나야 달고 맛있는 여름과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것이나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의 단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여름의 더위로 인해 값비싼 열매를 얻게 될것을 기대하며, 귀한 결실은 고난을 지나 진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지도자훈련 (CMT-Children Ministry of Thailand)사역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1월 번역 완료한 올해의 교재는 마지막 교정과 교열을 마치고, 2월 말에 인쇄 완료되어 3월 3일 강사, 선교사 모임을 시작으로 3월 2주차에 방콕 MTS신학교 강습회를 시작으로 북부 차이쁘라칸 군, 3주차 치앙마이와 치앙라이까지 4개 지역에서 강습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월 1-3일까지는 컨계에서 동북부 지역 강습회가 이어지고, 마지막 계획된 강습회는 4월 26일 방콕 짜이 짜만 람캄행 68교회에서 중부지역 강습회를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은 여정과 사역에 태국 어린이사역에 관심을 가진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여, 태국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강습회를 마친 일부 교회는 성경학교를 진행중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태국 다음세대들이 올해의 교재를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ETI (English Teaching Institute, 영어교사훈련) 사역

ETI 사역은 지난 2월 3일부터 15일까지 민선교사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된 수단, 남수단 분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하여, 남수단 선생님들과 교회지도자들을 세워드리는 일에 섬겼습니다. 아쉽게도 민선교사가 도착 전과 후 두번의 세미나 사역이 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 함께 섬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과 남수단 학생들을 위한 INA School 영어교사들을 중심한 ETI 영어 세미나에는 수단교회 담임목회자와 이집션 사역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속에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찾아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포용력과 옛 거대 국가의 위엄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또한 성경속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어 복음이 성경속 이야기를 타고 충분히 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중부 아슈트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버스로 약 4시간이상 소요되는 거리에서 조차 아기 예수님이 방문했다는 유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복음이 잘 스며들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국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집션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역자들을 잘 훈련하는 모판과도 같은 사역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쓰임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에서 뜻깊은 특별 일정은 한인선생님들 세미나에 이집트 시내산 아래 베드윈들 속에 함께 살며 섬기는 선생님 한 분이 참여하시게 되어 그분의 안내를 받아 시내산 등반과 성 캐더린 수도원을 방문하는 하는 경험을 했고, 마지막 공항으로 나오면서 공항 근방 헬리오 폴리스(태양의 도시, 구약에서는 '온')와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중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머물었다는 성지(Mary's Tree) 방문도 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집트에도 구약과 신약성서시대의 역사가 많이 숨어 있음을 느끼며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4월 2일부터 5일까지 피닉스 십자가의 교회와 7일부터 10일까지는 시카고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생님들이 어느 국가나 지역에 가서 영어 사역자를 세워준다면 어느 국가 출신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귀한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프라폰교회 & 루엄짜이교회, 한국어 교육 사역등



지난 2월 17일 이집트 사역 마치고 곧바로 포천성결교회 단기선교팀이 어프라폰교회를 방문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과 단지내 마을 전도를 성도들과 팀을 이루어 노방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파트 단지 전체를 돌며 전도 책자와 선물을 지역사회에 나누었습니다.

치앙마이 루엄짜이교회는 지난 겨울을 지나며 두분의 연로하신 랏장로님과 교회 관리로 섬겨주셨던 김성도님이 주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만 아콤포회자의 섬김으로 모든 장례절차가 순적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은자선교사의 학교사역

안은자 선교사의 학교 사역을 통해 많은 만남들 속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주임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제목

1. 2025년 주제 “담년 치유타프라예수!(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성경학교교재 출판으로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성경학교교사 강습회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강습회를 마친 교회에서는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선교사들을 붙여 주심에 감사!
2. 미국 피닉스와 시카고에서 진행될 ETI 세미나를 통해 세워진 사역자들이 영어를 통한 사역지와 학생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도록
3. 어프라폰교회를 동역하는 아짠 용웃과 저희 가정 그리고 루엄짜이교회 아짠 아콕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새로운 구원 받을 성도들을 많이 붙여 주시도록
4. 가족들이 주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 05810)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GP선교회 한국본부 전화: 443-0883

한국: 하나은행 990-090818-854 예금주: GP(민윤기 안은자) E-mail: minburi21@naver.com

미국 :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Check memo: Youn Ki Min)

태국에서 동역자된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올림